전북대, 우간다 낙농산업 진출 교두보 마련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학장단 초청 세미나 열어
소 품종 공동 연구·낙농 시범사업 협의 구체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우간다 낙농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2016년 우간다 최고 명문대학인 마케레레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우간다 간 지속해오고 있는 협력이 더욱 확대·강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과 전북대 부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학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우간다 간 아프리카 소 품종 공동연구와 우간다 낙농 시범사업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학연계형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또한 향후 KOICA에서 진행하는 IBS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상호 협력도 추진한다.

전북대는 2016년 마케레레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우간다 간 지속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산학연계형 석사과정 프로그램과 KOICA IBS 우간다 농축산 순환형 농가소득 창출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과 전북대 부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학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

산학연계형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는 우간다 마케레레 축산수의대 졸업생을 전북대로 초청해 우간다를 이끌 엘리트 축산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해 현재 13명의 우간다 대학원생들이 전북대 농축산식품융합학과에 재학 중이다.

KOICA IBS 우간다 농축산 순환형 농가소득 창출 사업은 모로코에 시범농업단지를 형성하여 우간다 내 현지농업인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올해 8월에는 전북대에서 현지에 설립한 양계시설의 기공식을 추진한다.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이학교 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우간다 간 동물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산학연계형 축산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내일 전북대에서 열어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창의적인 공학설계(캡스톤 디자인)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가 21일 진수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북대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 낸 공학설계 작품을 전시하고 자웅을 겨루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190여 점의 캡스톤디자인 작품이 산업체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시된다.

또한 산학협력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과 캡스톤디자인 옥션 아이디어 마켓, 캡스톤디자인 UCC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LINC+사업단 고영호 단장은 "매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며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과 융·복합적 문제 해결능력이 배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익산시가 산업체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원광보건대학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 요구 우수 인재 양성 기술 지원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익산시 - 원광보건대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협약

익산시가 산업체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광보건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원광보건대학교의 학부 개편으로 지역사회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9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식품 및 외식산업분야의 핵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보건의료학부에 포함된 식품영양과와 호텔관광외식학부의 외식조리과를 식품클러스터학부로 개편한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익산시는 학생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협조 지원하고 원광보건대학교는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학술 및 기술정보, R&DB,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연구 및 개발, 양성된 인력의 기업체 매칭을 중점 실시하게 된다.

또한 원광보건대학교는 학부 개편에 맞춰 교수 현장 연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을 지원하고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인재양성 교육에 필요한 입주기업 취업 인턴 지원사업,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청년 창업지원Lab,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 유치원 이름을 지어 주세요"

내년 3월 개원 익산 공립 단설 유치원 교명 공모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2019년 3월 개원 예정인 익산 공립 단설 '가칭 솜리유치원'의 교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7월 9일까지로 전북도민 누구나 공모할 수 있다.

해당 유치원은 익산시 오산면 (구)영만초등학교 이전부지에 12학급(특수6학급 포함) 규모로 신설되는 익산시 공립 단설 두 번째 유치원이다.

교명은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유치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지역 특색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전라북도 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해당 유치원은 익산시 오산면 (구)영만초등학교 이전부지에 12학급(특수6학급 포함) 규모로 신설되는 익산시 공립 단설 두 번째 유치원이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2019년 3월 개원 예정인 공립 단설 유치원이 우리 지역 유아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명 제정에 익산지역 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한 전북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jbise.kr) 교명 공모 안내 팝업창을 참고하거나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063. 850-887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원광대, 중국 연변대 훈춘캠퍼스에서 교육과정 공동운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중국 연변대(총장 김웅) 훈춘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

원광대는 연변대와 편입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협의에 나서 최근 양교 합의사항을 마무리 짓고, 운영학과 선정 등 세부사항 조정에 들어갔다.

원광대와 연변대가 협의한 프로그램은 연변대 훈춘캠퍼스에서 3년제 전문대 과정을 마치고, 원광대 학부 3학년으로 편입학해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원광대 학위를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교는 현재 지역재활, 물류관리, 응용컴퓨터, 응용한국어, 레져스포츠 등 5개 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주 최종적으로 공동 운영 학과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안 결정을 위해 정정권 부총장을 비롯한 원광대 방문단이 20일부터 24일까지 연변대를 방문하는 가운데 공동 운영 학과가 결정되면 양교는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입시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9월부터 연변대 훈춘캠퍼스에서 학과 운영에 들어가며, 향후 원광대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도교육청, 학교 보건실 5억원 투입 현대화 추진

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실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대상학교는 초 24개교, 중 5개교, 고 6개교, 특수 1개교로 총 36개교에 5억원이 투입된다.

보건실 현대화는 안정실, 처치공간, 건강상담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학생들과 교직원이 보건실을 이용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상담, 처치,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방학을 이용해 시설 및 설비 공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낙후된 보건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